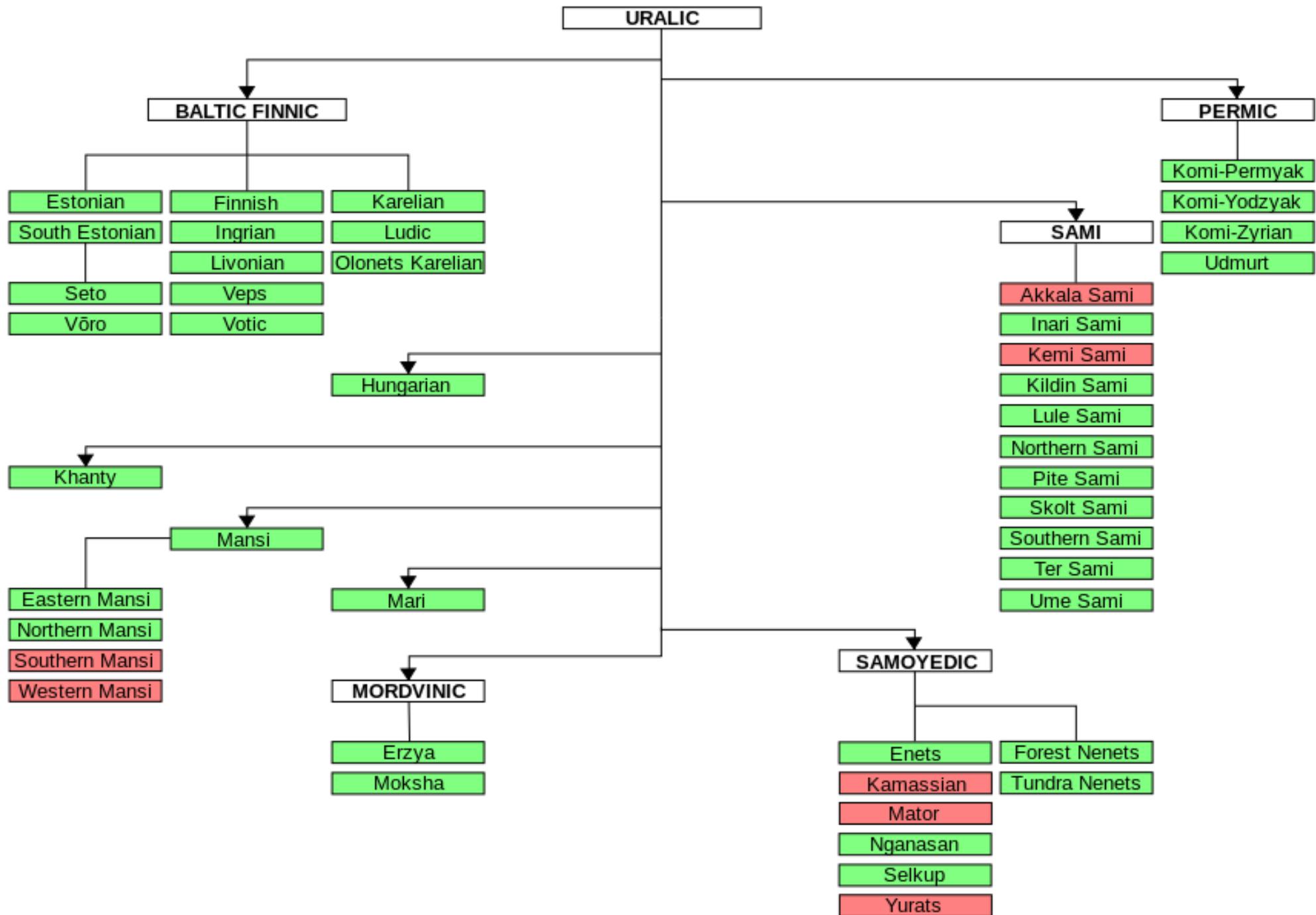


한국어의 계통과 형성

우랄 어족과 알타이 어족

- 19세기 및 20세기 초에 유라시아 대륙의 매우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우랄 제어와 알타이 제어를 모두 포괄하는 우랄-알타이 어족을 설정하는 견해가 있었으나
- 이 견해는 체계적 음 대응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우랄-알타이어 공통특질론에 기반을 둔 것이었음.
- 나중에는 우랄 어족과 알타이 어족을 2개의 어족으로 나누고, 이 둘 사이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定說이 되었음.
- 그 뒤에도 알타이 어족 공통특질론은 여전히 알타이 제어의 친족관계에 대한 방증으로 생각되어 왔음.

우랄어족



Ramstedt의 알타이 가설과 그에 대한 비판

- 핀란드의 언어학자 겸 외교관. 알타이 제어(튀르크 어군, 몽골 어군, 통구스 어군)의 친족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알타이어학의 기초를 닦음.
- 駐日 초대 공사로 일본에 파견되어 일본어의 계통, 특히 일본어가 알타이 어족에 속할 가능성에 대해 연구.
- 일본에 와 있던 한국인을 제보자로 하여 한국어에 대해 연구.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는 한국어 연구에 열정을 쏟아 부음. 한국어가 알타이 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 그 뒤 Poppe, 이기문 등이 Ramstedt의 주장을 계승하여 발전시킴.
- 그러나 한국어, 일본어에 대해서는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고 볼 증거가 너무 박약하다고 보는 입장도 널리 퍼져 있음.
- 심지어, 알타이 어족이 하나의 어족인지도 불분명하다는 회의론도 많음.
 - 튀르크 어군, 몽골 어군, 통구스 어군 사이에 의미와 음상이 유사한 단어들이 꽤 많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것이 차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
 - 더구나 이들 언어를 사용해 온 민족은 대개 유목 민족이라 지속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생활해 왔고, 이러한 이동 과정에서 서로 접촉하고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튀르크 제어

- (1) 추바시어(Chuvash)
 - l^2, r^2 가 그대로 l, r 로 남아 있음
- (2) 튀르크어군(Turkic group): $l^2 > s, r^2 > z$
- (2).1. 南튀르크어군
 - (2).1.1. 튀르크어(Turkish, Osman Turkish, Osmanli)
 - (2).1.2. 아제르바이잔어(Azerbaijan)
 - (2).1.3. 투르크멘어(Turkmen)
 - (2).1.4. 가가우즈어(Gagauz)
- (2).2. 西튀르크어군, 콥착어군(Kypchak group)
 - (2).2.1. 폰토-카스피어군(Ponto-Caspian group)
 - (2).2.1.1. 카라이어(Karai)
 - (2).2.1.2. 카라차이어(Karachay), 발카르어(Balkar)
 - (2).2.1.3. 쿠뮅어(Kumük)
 - (2).2.2. 우랄어군(Ural group)
 - (2).2.2.1. 타타르어(Tatar)
 - (2).2.2.2. 크림미안타타르어(Crimean Tatar)
 - (2).2.2.3. 바시키르어(Bashkir)
 - (2).2.3. 아랄-카스피어군(Aralo-Caspian group)
 - (2).2.3.1. 카자흐어(Kazakh), 카라칼팍방언(Karakalpak)
 - (2).2.3.2. 노가이어(Nogay)
 - (2).2.3.3. 키르기즈어(Kirgiz)
- (2).3. 東튀르크어군, 위구르어군(Uighur group), 차가타이어군(Chaghatai group)
 - (2).3.1. 우즈벱어(Uzbek)
 - (2).3.2. 현대위구르어(Modern Uighur, East Turki)
 - (2).3.3. 살라르어(Salar)
- (2).4. 北튀르크어군
 - (2).4.1. 아랄-사얀어군(Aral-Sayan group), 투바-카카스어군(Tuva-Khakas group)
 - (2).4.1.1. 알타이어(Altaic, Oirod): 콥착어군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도 함
 - (2).4.1.2. adaq어군
 - (2).4.1.2.1. 투바어(Tuva, Tuvinian, Soyot, Uriankhai)
 - (2).4.1.2.2. 카라가스어(Karagas, Tofa)
 - (2).4.1.3. azaq어군
 - (2).4.1.3.1. 아바칸어(Abakan): Sagai방언, Beltir방언, Kacha방언 - Khakas어로 통일
 - (2).4.1.3.2. 황위구르어(Yellow Uighur)
 - (2).4.1.4. ayaq어군
 - (2).4.1.4.1. 쇼르어(Shor)
 - (2).4.1.4.2. 출름어(Chulym): Ketsik방언, Küärik방언, Chulym방언
 - (2).4.1.4.3. 투바어(Tuba): Tuba방언(Black Forest Tatars), Kumanda방언, Chalkan방언, Lebed방언
 - (2).4.2. 北시베리아어군: 야쿠트어(Yakut), 古代튀르크어

몽골 제어

- (1) 東몽골 어군
 - (1).1. 다구르어(Dahur)
 - (1).2. 몽구오르어(Monguor)
 - (1).3. 몽골어(Mongol)
 - (1).3.1. 칼카방언(Khalkha, Xalxa): 몽골인민공화국의 공용어
 - (1).3.2. Dariganga방언
 - (1).3.3. Chakhar방언
 - (1).3.4. Urat방언
 - (1).3.5. Kharchin-Tumut방언
 - (1).3.6. Khorchin방언
 - (1).3.7. Ujumchin방언
 - (1).3.8. Ordos방언
 - (1).4. 부리야트어(Buriat)
 - (1).5. 산타어(Santa)
- (2) 西몽골 어군
 - (2).1. 모골어(Mogol)
 - (2).2. 오이라트어(Oirat): 칼묵어(Kalmuck)를 따로 독립시키기도 함

통구스 제어

- (1) 북방군, 통구스 어군
 - (1).1. 네기달어(Negidal)
 - (1).2. 에벤키어, 어웁키어(Evenki)
 - (1).3. 에벤어, 어웁어(Even)
 - (1).4. 라무트어(Lamut)
 - (1).5. 솔론어(Solon)
- (2) 남방군, 만주 어군
 - (2).1. 女真語(Juchen, Jurchen)
 - (2).2. 滿洲語(Manchu)
 - (2).3. 골디어(Goldi), 나나이어(Nanai)
 - (2).4. 울차어(Ulcha)
 - (2).5. 오로치어(Orochi)
 - (2).6. 오로키어(Oroki)
 - (2).7. 우디허어(Udihe)

(우랄-)알타이어 공통특질론

Winkler(1884, 1910), 藤岡勝二(1908), 服部四郎(1948, 1958), 이기문(1972)

• <음운>

- 1. 어두에 자음군이 오지 않는다.
- 2. 어두에 r음이 오지 않는다.
- 3. 모음조화가 있다. 특히 구개적 조화(전설 대 후설의 조화).

• <형태법>

- 4. 교착어이다.
- 5. 동사 활용이 오로지 접미사, 어미의 접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 6. 그러한 접미사, 어미의 종류가 많다.
- 7. 대명사의 변화가 인도유럽 제어와 다르다.
- 8. 모음교체 및 자음교체가 없다.
- 9. 단어의 형태가 2음절 이상인 경우가 많다.

• <어순>

- 10. 목적어, 보어가 자신을 지배하는 동사의 앞에 온다.
- 11. 전치사가 없고 후치사가 사용된다.
- 12. 수식어(관형어, 부사어)가 피수식어(체언, 용언)의 앞에 온다.
- 13. 의문문에서 어순의 변화가 없다. 의문 표지가 문말에 온다.

• <통사적 측면>

- 14. 관사가 없다.
- 15. 관계대명사가 없다.
- 16. 문법적인 성(gender)이 없다.
- 17. 'have'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고, 대신 '있다'에 의해 소유를 나타낸다.
- 18. 접속사의 사용이 드물다. 대신 副動詞(converb)를 사용한다.
- 19. 주어가 생략되고 술어만으로도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 20. 비교구문에서, 탈격 또는 그에 준하는 후치사를 사용한다.

(우랄-)알타이어 공통특질론 비판

- 위에 든 공통점은 단지 (우랄-)알타이 제어와 한국어, 일본어만의 유사성이 아니라, 전세계 언어들 가운데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특징이어서, 계통관계의 규명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전세계의 언어들을 폭넓게 관찰하지 못하고, 인도유럽 제어만을 바탕으로 한, 매우 시야가 한정된 관찰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오히려 여러 측면에서 한국어, 일본어는 알타이 제어와는 차이점이 많고, 오히려 태평양 연안의 언어들과 유사한 면이 많다(松本克己 2007).
- 박진호(2014) 참조
 - <http://www.koreantypology.org/>

알타이 제어와 한국어의 (체계적?) 모음 대응

	1	2	3	4	5	6	7	8	9
알타이조어	*a	*o	*u	*i	*e	*è	*ö	*ü	*i
고대국어	a ㅏ	ɔ(ʌ) ·	u(o) ㅑ	i ㅣ	ä(e,ə) ㅓ	i ㅣ	(i,ɯ) ㅡ	ü(u) ㅜ	i ㅣ

알타이 祖語

i ü i u
è e ö a o

古代國語

ㅣ ㅜ ㅑ
ㅡ ·
ㅓ ㅏ

後期中世國語

ㅣ ㅡ ㅜ
ㅓ ㅑ
ㅏ ·

모음 대응 사례

- ① 중세한국어 ㅏ : 알타이조어 *a
 - 중세한국어 아래, *아라(下), 에벤키 ala-s(脚,腿), 몽골 ala(內股), 古代튀르크 al(下面,前面), 中世튀르크 altin(아래), 야쿠트 al-i-n(下部,下), 알타이조어 al¹a(下,前面)
- ② 중세한국어 ㅓ : 알타이조어 o
 - 중세한국어 𐑆(馬), 만주 morin, 몽골 morin
 - 중세한국어 𐑆(竝), 만주 holbo-(연결하다, 짝짓다), 몽골문어 qolbo-(합하다, 연결하다)
 - 중세한국어 𐑆(狸), 만주 solohi(족제비), 에벤키 soligā(족제비)
- ②-1 중세한국어 ㅓ : 알타이조어 u
 - 중세한국어 𐑆(蘆), 몽골문어 qulusun(蘆)
 - 중세한국어 𐑆외(袴) < *𐑆𐑆, 몽골문어 qubčasun(옷), 에벤키 qubtuw-(옷입다)
- ③ 중세한국어 ㅜ : 알타이조어 u
 - 중세한국어 오라-(久), 에벤키 uri-pti(이전에), 몽골 urida(앞서)
- ③-1 중세한국어 ㅜ : 알타이조어 o
 - 중세한국어 봄(春), 몽골문어 on(年), 칼묵 on(年,春), 만주 fon(時候)
- ④ 중세한국어 ㅣ : 알타이조어 i
 - 중세한국어 이럼, 이𐑆(畦), 몽골 iraya, 만주 irun, चु바शु yran < *iran, 타타르 izan

모음 대응 사례

- ⑤ 중세한국어 ㅓ : 알타이조어 e
 - 중세한국어 ㅓ(折), 몽골 keseg(조각), 튀르크 kes-(折)
- ⑥ 중세한국어 ㅣ : 알타이조어 è
 - 중세한국어 일, 이ㅓ/이르-/일 ㅇ-, *이룩-(早), 만주 erde, 몽골 erte, 쉼바슈 ir, 투르크멘 ĩr, 아제르 바이찬 ertä
- ⑦ 중세한국어 ㅡ : 알타이조어 ö
 - 중세한국어 물(水), 만주 mu-ke [만주 ö,ü>u], 에벤키 mü [에벤키 ö>u], 몽골 mören(江)
- ⑦-1 중세한국어 ㅡ : 알타이조어 ü,u
 - 중세한국어 ㅓ(注), 만주 fusu-(撒水), 몽골 üsür-(撒水)<*püsür-, 몽구오르 fuzuru-(注), 튀르크 üskür-(입으로 뿜다)
 - 중세한국어 그울-(轉)<*그ㅓ-, 만주 kurbu-(輾轉), 몽골문어 körbö-(輾轉)
 - 중세한국어 붉-(赤), 만주 fulgiyan(赤), 몽골문어 ulaɣan<*pulaɣan(赤)
- ⑦-2 중세한국어 (ㄹ)ㅡ : 알타이제어 i
 - 중세한국어 즐기-(樂), 만주 žirga-(安逸), 몽골문어 žirɣa-(安逸)
- ⑧ 중세한국어 ㅓ : 알타이조어 ü
 - 중세한국어 불-(吹), 만주 fulgiye-, 몽골 üliye-, 중세몽골 hūli'e-<*pūligē-
- ⑨ 중세한국어 ㅣ : 알타이조어 i
 - 중세한국어 빌-(祈), 만주 firu-(禱,呪), 에벤키 hirug-, 몽골 irüge-(祝,禱)

모음 i의 breaking

- 語頭の i가 제2음절 모음 a, e 등의 영향으로 ya, ye 등으로 되는 현상.
- 한국어와 알타이 제어의 모음 대응에서 i와 ya, ye 등이 대응하는 사례들로부터 i의 breaking이 있었다고 추측하게 됨.
- 중세한국어 염(羶) < *ima, 만주 niman(山羊), 골디 ima(山羊), 에벤키 imagan(山羊), 몽골문어 imaxan(山羊)
- 중세한국어 열(膽), 에벤키 ilen(쓸개즙)
- 중세한국어 돌(石) < *tulhu < *tilhu < *tila-hu, 몽골 čilaɣun < *tila-gūn, 추바슈 čul, 고대튀르크 taš < *tala < *til²a, 투르크멘 dāš, 통구스 žolo

알타이 제어와 한국어의 (체계적?) 자음 대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알.조	p	b	t	d	k	g	č		s	m	n	ŋ	r ¹	r ²	l ¹	l ²
튀	∅	b	t	y	k,q	k,q	č	y	s	m,b	y		r	z	l	š
몽	h,∅	b	t	d	k,q	g,ɣ	č		s,ś	m	n		r	r	l	l
통	p,f,h	b	t	d	k	g	č		s,h,ś	m	n		r	r	l	l
국어	ㅂ		ㄷ		ㄱ		ㅈ		ㅅ	ㅁ	ㄴ	ㅇ	ㄹ			

자음 대응 사례

- ① 한국어 ㅂ : 알타이조어 *p : 만주 f, 골디 p, 에벤키 h, 솔론 ø; 중세몽골 h, 몽구오르 f, 다구르 x, 기타 몽골제어 ø; 튀르크어군의 東南 및 西南제어 h, 기타 튀르크제어 ø --- Ramstedt 법칙
 - 중세한국어 불-(吹), 만주 fulgiye-, 몽골 üliye-, 중세몽골 hūli'e- < *pūligē-
 - 중세한국어 빌-(祈), 만주 firu-(禱, 呪), 에벤키 hirug-, 몽골 irüge-(祝, 禱)
 - 중세한국어 ㅃ(注), 만주 fusu-(물을 뿌리다), 몽골 üsür-(뿌리다, 솟다), 몽구오르 fuzuru-(붓다), 튀르크 üskür-(입으로 뿜다)
 - 성백인(1978): 알타이조어의 폐쇄음들 간의 대립을 무성·유성의 대립이 아니라 무기·유기의 대립으로 볼 가능성 제기
- ⑬ 한국어 ㄹ : 알타이조어 r¹
 - 현대한국어 (눈)보라, 몽골 boroxan(비), 중세몽골 boro'an, 야쿠트 burxān(눈보라)
- ⑭ 한국어 ㄹ : 알타이조어 r²
 - 중세한국어 이럼, 이ㅃ(畦), 몽골 iraxa, 만주 irun, चुबाशु yəran < *iran, 타타르 izan < *ir²an

자음 대응 사례

- ⑮ 한국어 ㄹ : 알타이조어 l¹
 - 중세한국어 아래, *아라(下), 에벤키 ala-s(脚,腿), 몽골 ala(內股), 古代튀르크 al(下面, 前面), 中世튀르크 altin(아래), 야쿠트 al-i-n(下部,下), 알타이조어 al¹a(下,前面)
- ⑯ 한국어 ㄹ : 알타이조어 l²
 - 중세한국어 돌(石) < *tuluh < *tilhu < *tila-hu, 몽골 čilayun < *tila-gūn, 쉼바슈 čul, 고대 튀르크 taš < *tala < *til²a, 투르크멘 dāš, 통구스 žolo
- ⑰ 한국어 ㅎ : 알타이조어 *s(*j)
 - 중세한국어 □(太陽), 만주 šun, 골디 siú, 솔론 šigon
 - 중세한국어 □(土) < *horog < *hiroga < *široga, 골디 siru(砂), 에벤키 sirugi(砂), 솔론 širuktan(砂), 몽골문어 širuɣai(塵,土)
- ⑰' 한국어 ㅅ : 알타이조어 *s(*j)
 - 중세한국어 실(絲), 만주 siren, 에벤키 siren
 - 중세한국어 실에, 시□(架), 에벤키 sirikkn(장대), 몽골문어 siruɣ(장대)
- ⑰과 ⑰'을 함께 고려하면 알타이조어에 후두자음을 재구할 가능성을 제기.
 - 한국어를 시야에 넣음으로써 비로소 제기되는 가능성

알타이 제어와 한국어의 문법요소의 유사성

• (1) 곡용어미(조사)

- (1).1. 중세한국어 처격 -애/에 < *-a, 알타이조어 여격 *-a/-e
- (1).2. 중세한국어 조격 -로, 알타이조어 향격 *-ru/-rü
- (1).3. 중세한국어 '이리, 그리, 터리, 아□리'의 '-리', 알타이조어沿格 *-li
- (1).4. 중세한국어 주제 보조사 -(□/으)ㄴ, 몽골 -ni < 3인칭 대명사 속격형 inu(단수)/anu(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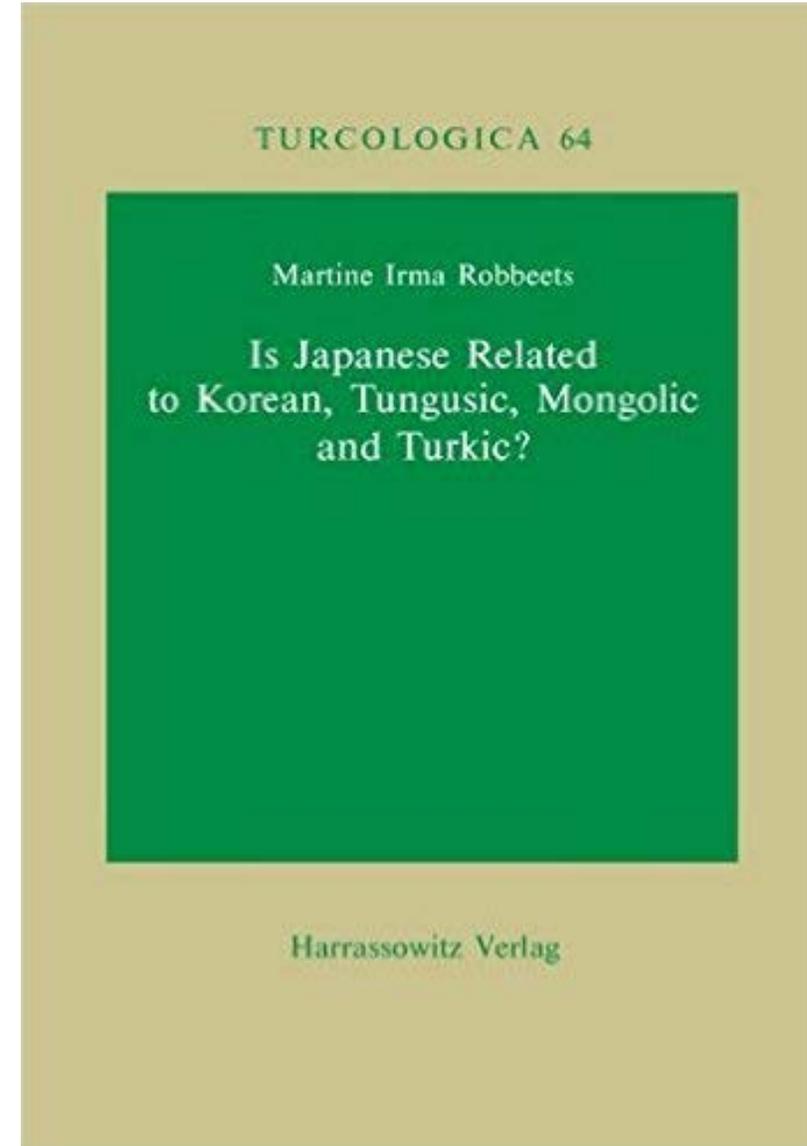
• (2) 활용어미

• (2).1. 동명사 어미

- (2).1.1. 한국어 -ㄴ, 알타이제어 명사화접미사(고대튀르크 aq- 흐르다, aqin 水流,流入, 몽골문어 singge- 녹다,스미다, singgen 액체), 에벤키어 dug- 치다, dugin 打擊, tægənni(네가 앓는다) < *tægən-si, ḡəne- 가다, ḡənenni 네가 갔다
- (2).1.2. 한국어 -ㄹ, 고대튀르크 현재형(olur-ur 앓아 있는), 몽골제어 명사화접미사(몽골문어 amu- 쉬다, amu-r 安息), 퉁구스제어 미래 동명사(솔론 wā- 죽이다 wār xonin 죽일 羊)
- (2).1.3. 한국어 -ㅁ, 알타이제어 명사화접미사(고대튀르크 öl- 죽다, öl-üm 죽음, 몽골 narad- 놀다, narad-um 놀음, 先고전몽골문어 yubu-m 간다), 고대일본어 -mi
- (2).2. 부동사 어미: 동명사 어미 + 사격 어미 - 몽골 -ra/-re < 동명사 -r + 처격 -e
- 알타이조어에서 모든 문장은 名詞文

Ramstedt와 이기문의 논리와 그에 대한 비판

- 어휘요소에 비해 문법요소는 차용되기가 매우 어렵다.
- 알타이 제어와 한국어 사이에 의미와 음상이 유사한 문법요소가 꽤 많이 발견된다.
- 따라서, 알타이 제어와 한국어는 친족관계에 있다.
- 이런 논리를 최근에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는 학자가 Martine Robbeets
- 비판
 - 문법요소는 제한된 음소만 사용하고 길이가 짧음.
 - 음소 구별이 적고 길이가 짧을수록 우연한 일치의 가능성이 높아짐.
 - 친족관계의 증명에서 중요한 것은 단편적인 문법요소의 의미,음상의 유사가 아니라
 - 형태론적 구조 전체의 유사성임. cf. Ket – Na Dene



알타이 제어와 한국어의 동원어(cognate word) 후보

- (1) 한국어와 통구스제어
 - 중세한국어 발(足), 골디 palgan, 에벤키 halgan, algan, 일본 琉球 방언 pagi, fagi, 일본 八丈島 방언 hagi, 고대일본어 *palgi
 - 중세한국어 □(太陽), 만주 šun, 골디 siú, 솔론 šigun
 - 중세한국어 나랏(國), *나-랏, 만주 na, 골디 na(地)
- (2) 한국어와 몽골제어
 - 중세한국어 날(日), 몽고 naran(太陽)
 - 중세한국어 눈(眼), 몽고 nidün < *nün-dün
 - 한국어 나(我), 몽고 사격형 *na(처격 nadur, 대격 namayi), 고대일본어 na(1.2인칭 대명사)
 - 한국어 오-(來), 몽고 oru-(入)
 - 한국어 가-(去), 몽고 ɣar-(出)
- (3) 한국어와 튀르크제어
 - 중세한국어 온(百), 고대튀르크 on(十)

알타이 제어와 한국어의 동원어(cognate word) 후보

- (4) 한국어와 일본어

- 중세한국어 섬(島), 고대일본어 sima
- 중세한국어 낡(鎌), 고대일본어 nata(鉞)
- 중세한국어 밭(田), 고대일본어 fata
- 중세한국어 바닷(海), 고대일본어 wata
- 한국어 명사화접미사 -이, 고대일본어 -i

- (5) 알타이제어와 일본어

- 일본어 kata(한쪽), 에벤키 kalta(半), 몽골 qaltas(半)
- 고대일본어 대격 -wo, 통구스제어 대격 -wa/-we
- 고대일본어 연격 -yuri, 원시통구스 *-duli
- 고대일본어 yo(四), 원시통구스 *dö
- 고대일본어 nana(七), 원시통구스 *nadan
- 고대일본어 yo(夜), 원시통구스 *dolbo

한국어가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는 가설에 대한 평가

- 비교 방법의 핵심인 체계적 음 대응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 제안된 음 대응 규칙에 어긋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음.
- 알타이어 공통특질론은 유럽어에 바탕을 둔 편견의 소산이다.
 - 소위 공통특질은 알타이어 외에도 세계 많은 언어에서 발견됨.
 - 한국어는 유라시아어뿐 아니라 환태평양어와의 유사성도 많음.
- 문법요소의 대응은 단편적인 요소의 대응이어서 우연일 가능성이 있다.
 - 단편적인 요소보다 형태론적 구조 전체의 유사성이 중요함.
- 동원어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차용어일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통구스 제어 중 남방군, 특히 만주어는 한반도의 언어들과의 오랜 접촉으로 인해 통구스어로서는 매우 특이한 성질을 많이 갖게 되었음.
 - 한국어와 통구스어 사이의 동원어로 거론되어 온 것들 중 남방군에서만 발견되고 북방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들이 많음.
 - 그런 것들은 언어접촉/차용일 가능성이 높음.

고대 한반도, 만주의 언어상황에 대한 記事

- 만주와 한반도에 여러 부족국가들이 성립되고 이들이 기원 전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3국으로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들 지역의 언어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어렵게나마 알려 주는 단편적 기록들이 남아 있다.
- ① 東夷舊語 以爲夫餘別種 言語諸事 多與夫餘同 其性氣衣服有異 (三國志 魏志 東夷傳 高句麗條)
 - (고구려어는) 동이족의 옛 언어로서 부여어의 별종이다. 언어와 기타 제반 일들 중에 부여와 같은 것이 많으나, 성품이나 의복에는 차이가 있다.
- ② 其言語與句麗大同 時時小異 (三國志 魏志 東夷傳 東沃沮條)
 - 그 언어가 고구려와 대체로 같으나 때때로 약간 다른 점이 있다.
- ③ 其耆老舊自謂 與句麗同種 ... 言語法俗大抵與句麗同 衣服有異 (三國志 魏志 東夷傳 濊條)
 - 이 부족의 노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고구려와 같은 종족이라고 한다. ... 언어와 규범, 풍습이 대체로 고구려와 같으나 의복은 차이가 있다.

고대 한반도, 만주의 언어상황에 대한 記事

- ④ 挹婁 ... 古肅慎國也 ... 在夫餘東北千餘里 濱大海 南與北沃沮接 未知其北所極 其土地多山險 其人形似夫餘 言語不與夫餘句麗同 (三國志 魏志 東夷傳 挹婁條)
 - 읍루는 예전의 숙신국이다. 부여의 동북쪽 천여리에 있으며 바닷가까지 이르고 남으로는 북옥저와 접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그 경계를 알 수 없다. 지형은 산이 많고 험하다. 사람들의 외모는 부여와 비슷하나 언어는 부여, 고구려와 같지 않다.
- ⑤ 勿吉國 在高麗北 舊肅慎國也 (魏書 列傳 勿吉條)
 - 물길국은 고구려 북쪽에 있는데 예전의 숙신국이다.
- ⑥ 勿吉國 在高句麗北 一曰靺鞨 ... 言語獨異 (北史 列傳 勿吉條)
 - 물길국은 고구려 북쪽에 있는데 말갈이라고도 한다. 언어는 (고구려와) 유달리 다르다.
- ⑦ 靺鞨 在高句麗之北 ... 卽古之肅慎氏也 (隋書 列傳 靺鞨條)
 - 말갈은 고구려 북쪽에 있다. ... 예전의 숙신족이다.

고대 한반도의 언어상황에 대한 記事

- ⑧ 韓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 ... 凡七十八國 ... 地合方四千里 東西以海爲限 皆古之辰國也 (後漢書 東夷傳 韓條)
 - 한에는 세 종족이 있다. 이들을 마한, 진한, 변진이라고 한다. ... (삼한을 통틀어서) 모두 78개의 소국이 있다. 영토는 삼한을 합쳐서 사방이 천리이고 동쪽과 서쪽으로는 바다와 접하고 있다. 모두 예전의 진국이다.
- ⑨ 辰韓在馬韓之東 其耆老傳世自言 古之亡人避秦役 來適韓國 馬韓割其東界地與之 有城柵 其言語不與馬韓同 名國爲邦 弓爲弧 賊爲寇 行酒爲行觴 相呼皆爲徒 有似秦人 非但燕齊之名物也 (三國志 魏志 東夷傳 辰韓條)
 -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는데 그 노인들이 대대로 말해 오기를 "예전의 우리 조상이 진나라의 부여를 피해 한국에 도망왔는데 마한이 그 동쪽 변방의 땅을 떼어서 주었다"고 한다. 성곽이 있고 언어는 마한과 같지 않다. 나라를 邦이라 부르고 활을 弧라 하고 도적을 寇라 하고 술을 行觴이라 하고 자기들끼리 부르기를 徒라고 한다. 秦나라 사람과 비슷한 점이 있으니 비단, 연나라, 제나라의 물건 이름뿐만이 아니다.
- ⑩ 弁辰與辰韓雜居 亦有城郭 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 (三國志 魏志 東夷傳 弁辰條)
 - 변진은 진한과 섞여 산다. 역시 성곽이 있고 의복과 사는 집이 진한과 같다. 언어와 규범, 풍속도 서로 비슷하다.
- ⑪ [辰韓與弁辰] 言語風俗有異 (後漢書 東夷傳)
 - (진한과 변진은) 언어와 풍속이 다른 점이 있다.

고대 한반도의 언어상황에 대한 記事

- ⑫ 今言語服章 略與高麗同 (梁書 列傳 諸夷 百濟條)
 - (백제는) 현재 언어와 복장이 대체로 고구려와 같다.
- ⑬ 語言待百濟而後通焉 (梁書 列傳 諸夷 新羅條)
 - (신라의) 언어는 백제인을 중간에 두어야 비로소 (중국인과) 통할 수 있다.
- ⑭ 王姓夫餘氏 號於羅瑕 民呼爲鞞吉支 夏言竝王也 妻號於陸 夏言妃也 (周書 異域傳 百濟條)
 - (백제의) 왕의 성씨는 부여씨이고 (왕을) '어라하'라고 부른다. 백성들은 (왕을) '건길지'라고 부른다. 중국말로로는 모두 왕이라는 뜻이다. (왕의) 부인은 '어륙'이라고 하는데 중국말로로는 왕비라는 뜻이다.
- ⑮ 旃檀梁 城門名 加羅語謂門爲梁云 (三國史記 卷44)
 - '전단량'은 성문의 이름이다. 가라(가야) 말로는 문을 '량(똥)'이라고 한다.

記事에 대한 해석

- ①~③을 종합하면 부여어, 고구려어, 옥저어, 예어는 모두 부여계로서 같은 계통에 속함을 알 수 있다.
- ④~⑦을 종합하면 숙신, 읍루, 물길, 말갈은 같은 종족의 이름으로서 이들은 부여계와 다른 계통의 언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 ⑧~⑪은 삼한의 언어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 ⑨에서 진한의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진한 종족 전체에 대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아마도 진한의 일부 계층(아마도 지배 계급) 사람들이 중국에서 건너온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 ⑨에서 언어가 중국어와 유사하다고 한 것도 이 일부 계층에 한정된 이야기일 것이다.

記事에 대한 해석

- ⑩과 ⑪도 진한과 변진의 언어에 대해 서로 엇갈리는 증언을 하고 있다. 이것은 변진(뒤의 가야)어의 위치에 대해 중대한 암시를 던져 준다. 즉 변진(가야)은 한계 제어에 속하면서도 북방의 부여계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 ⑮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 ⑫는 백제의 지배층의 언어가 고구려어와 같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 ⑬은 백제어가 중국어와 비슷하다는 뜻이 아니라, 신라에 비해 백제가 중국과 교류가 많아 한문이나 중국어에 능한 사람이 많았다는 뜻일 것이다.
- ⑭는 백제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에 언어의 차이가 있었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증거

삼국사기 지리지의 고구려 지명

- 三國史記 地理志 卷35(雜志 第四 地理二), 卷37(雜志 第六 地理四)의 지명 자료에 담겨 있는 고구려어에 대한 정보
- 권35: 景德王이 改名한 지명(漢譯名)과 고구려 本地名, 고려 때 지명 併記
 - ①水城郡 本高句麗買忽郡 景德王改名 今水州
 - ②瀑池郡 本高句麗內米忽郡 景德王改名 今海州
 - ③重城縣 本高句麗七重縣 景德王改名 今積城縣
 - ④潢川縣 本高句麗潢川縣 景德王改名 今復故
- 권37: 고구려 본래의 音讀名과 釋讀名 併記
 - ①買忽 一云 水城
 - ②內米忽 一云 池城 一云 長池
 - ③七重縣 一云 難隱別
 - ④潢川縣 一云 於斯買
- 같은 地名에 대해 音讀名과 釋讀名이 대응을 보일 때, 고구려어 단어의 音相과 意味를 얻을 수 있음. 이렇게 해서 알아낸 단어가 약 80개.
 - 80개 단어 중 30 정도가 중세한국어와 대응, 일본어와도 30 정도 대응, 통구스諸語와 15 정도 대응.

고구려어의 음운적 특징

- (1) 어말 모음의 탈락(중세한국어, 신라어, 튀르크제어와 공통)
 - xol 忽(城), 만주 holo(谷)
 - namil 乃勿(鉛), 일본어 namari(鉛)
 - tal 達(山,高), 일본어 take(嶽) < *talke
 - tan 呑,頓,旦(谷), 일본어 tani(谷)
 - kap 甲(穴), kapi 甲比(穴), 일본어 kafi(峽), 고대튀르크 kapir(門)
 - xolč 忽次(口), koč 古次,串(口)
 - uč 于次(五)
 - yač 也次(母)
- (2) t 구개음화
 - xolč, kolč(口), 고대일본어 kuti(口)
 - uč(五), 고대일본어 itu(五)
- (3) 모음간 d > n
 - nanin(또는 nanan) 難隱(七), 통구스제어 nadan(오로치, 오로키 nada), 고대일본어 nana

고구려어의 음운적 특징

- (4) 고대일본어와 비교할 때 語末 子음을 유지하는 경향
 - tək < ?*təwək 德(十), 고대일본어 töwo(十)
 - mil 密(三), 고대일본어 mi(三)
 - pyəl 別(重), 중세한국어 口(重), 고대일본어 fä(重)
 - nanin 難隱(七), 고대일본어 nana(七)
- (5) 통구스제어와 일본어의 a에 대응하는 모음이 원순성을 띠었던 듯
 - '谷'을 의미하는 단어: tuan 또는 twan 旦(中古音 tan), 呑(中古音 t'ən), 頓(中古音 twən), cf. 村 呑(朝鮮館譯語), 일본어 tani(谷)
 - '壤'을 의미하는 단어: nua 또는 nwa 內(中古音 nuai), 奴(中古音 nuo), 惱, 那, 신라어 內(世), 누리, 중세한국어 누, 나랑(國), 南方系 통구스제어 na(土地), 고대일본어 na(土地)
- (6) *bi- > *wi- > i-
 - *wi 位(似) [高句麗呼似爲位(三國志 魏志 東夷傳)] cf. 이섯□ -, 이섯□ -
 - *wi-si- > isi-, cf. 통구스제어 bi-, bi-si-

고구려어와 다른 언어의 어휘 대응

• (1) 알타이 제어와의 대응

- mie 買(中古音 mai), 米(中古音 miei:), 彌(中古音 myie:), 몽골문어 mören(江), 중세몽골 mören(江,海), 에벤키 mu(水), 만주 mu-ke(水), 중세한국어 물(水), 고대일본어 midu(水)
- pak- 伯(逢), 에벤키 baka-, 라무트 bak-, 골디 ba-(發見), 만주 baha-(得), 튀르크 bak-(見)
- i- 伊(入), 통구스제어 i-(入), 몽골문어 ire-(來), 고대일본어 ir-(入)
- koi 古衣(鵠), 중세한국어 고해(鵠), 고대일본어 kofu(鵠), 중세튀르크어 qoyu(鵠)
- mair 買尸(蒜), 중세한국어 마口(蒜), 고대일본어 mira(韭), 몽골문어, 중세몽골 mangirsun

• (2) 통구스제어와의 대응

- ma 馬(堅), 에벤키 maŋa, 라무트 maŋ, 만주 mangga(堅)
- piryəl, piri 比里(淺), 골디 biri(淺)
- əl 於乙(泉), 오로치 uli(水,江)

• (3) 통구스 어군, 한국어, 일본어에 공통적인 색조를 짙게 보여줌

- koŋ(?*kum) 功(熊), 중세한국어 곰, 백제어 고마, 고대일본어 kuma, 에벤키, 라무트 kuma(海豹), 에벤키어 kumaka(牡鹿)
- na(壤), 南方통구스제어 na(地), 고대일본어 na(地), 신라어 內(世)

고구려어와 한국어의 어휘 대응

- əs 於斯(橫), 중세한국어 엇-(橫)
- kimil 今勿(黑), 중세한국어 검-(黑)
- kinr(?kir) 斤尸(文), 중세한국어 글(文, 字)
- šul'i, šulni 述爾, 述尔, 首泥(峯), 중세한국어 수늬(嶺)
- šu 首(新), 중세한국어 새(新)
- šu 首(牛), 중세한국어 쇼(牛)
- 伊伐支(隣), 중세한국어 이웃 < *이빙 一不(隣)
- əl 於乙(泉), 신라어 il 乙(泉)
- ka 加, 皆(王), kan, han 干, 翰

고구려어와 일본어의 어휘 대응

- mie 買(中古音 mai), 米(中古音 miei:), 彌(中古音 myie:), 몽골문어 mören(江), 중세몽골 mören(江,海), 에벤키 mu(水), 만주 mu-ke(水), 중세한국어 물(水), 고대일본어 midu(水)
- '壤'을 의미하는 단어: nua 또는 nwa 內(中古音 nuai), 奴(中古音 nuo), 惱, 那, 신라어 內(世), 누리, 중세한국어 누, 나랑(國), 南方系 통구스제어 na(土地), 고대일본어 na(土地)
- nami 內米(池,長池), 고대일본어 nami(波), 통구스제어 namu, lamu < *namu(海)
- nanin 難隱(七), 고대일본어 nana(七), 통구스제어 nadan(七)
- tan 呑, 頓, 旦(谷), 고대일본어 tani(谷)
- poksa 伏斯(深), 고대일본어 fuka(深)
- sapi, sapok(赤), 고대일본어 söfo(赭)
- osaxan 烏斯舎(兔), 일본어 usagi, 길리약 ośk(兔)
- 특히 기본 數詞(1~10)의 대응은 매우 인상 깊음.
 - mil 密(三), 고대일본어 mi(三), 고대튀르크어 biš(五)
 - uč 于次(五), 고대일본어 itu(五), 고대튀르크어 uč(三)
 - nanin 難隱(七), 고대일본어 nana(七), 통구스제어 nadan(七)
 - tək < ?*təwək 德(十), 고대일본어 töwo(十), 고대튀르크어 toquz(九)

고구려어의 기타 특징

- 길리약어(Gilyak)/니브흐어(Nivkh)와의 대응
 - čam 斬(根), 길리약 tʃamy(根株)
 - osaxam 烏斯唵(兔), 길리약 ośk(兔), 일본어 usagi
 - əi 於乙(泉), 길리약 ri, érri(江), 오로치 uli(水,江), 신라어 il 乙(井)
 - paxe, pa'i 波兮, 巴衣(巖峴), 길리약 pax(石,崖), 중세한국어 바회(岩), 고대일본어 ifafo(巖)
- 문법적 특징
 - 甲比古次(穴口)의 '甲比'는 명사 '甲'(穴)의 곡용형일 수도 있다.
 - '達'이 '山'의 뜻으로도 '高'의 뜻으로도 쓰임.
 - 형용사가 명사에 가까운 알타이 제어와의 공통점.
 - 목적어-동사의 어순: 王逢縣 一云 皆伯, 水入縣 一云 買伊縣
 - 동사가 어간만으로도 쓰임.
 - 동사-목적어의 어순: 山上王의 諱인 '位宮'(三國志 魏志 東夷傳)

삼국사기 지리지 소위 고구려 지명에 대한 논란

- 이기문 교수는 삼국사기 권35, 37의 본고구려 지명을 고구려어 자료로 간주함.
- 도수희 교수는 이 지명들이 한강 유역의 중부지방 지명임을 지적.
 - 삼국사기 지리지에 제시된 지명들은 기본적으로 통일신라의 판도 안에 있는 지역임.
- 이 지역은, 장수왕의 남하정책으로 고구려의 판도에 들어가기 전에는 백제의 영토/발상지였음.
- 이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 기간보다 백제의 지배 기간이 더 깊.
- 어떤 지역에 대한 정치적 지배자가 바뀌어도 지명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일반적임. 예: 영국의 켈트어 지명, 미국의 원주민 지명
- 도수희의 결론: 삼국사기 지리지 본고구려 지명은 사실은 백제어 자료.
- 이기문 교수는 중부 지명과 압록강 유역의 지명이 유사함을 지적
 - 고구려어와 백제 지배층 언어는 거의 같으므로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듯.

삼국사기 지리지 본백제 지명

- (1) 어휘는 대체로 신라어, 중세한국어와 일치
 - *turak 珍惡(石), 중세한국어 돌(石), 현대 중부 이남의 방언형 tok < *tork
 - *sa 沙(新), 중세한국어 새(新)
 - *mərke 勿居(淸), 중세한국어 □(淸)
 - *muraŋ 毛良(高), 중세한국어 □□/□ㄹ < *□□(棟, 宗)
- (2) 語末 母音 보존 경향
 - *pūri 夫里, 신라어 *pr 火, 고구려어 xol 忽
 - 熊津 고·마□□(龍飛御天歌), 중세한국어 :곰, 일본어 kuma(熊)
- (3) 신라어, 중세한국어에 없는 단어
 - *ki 己, 只(城) --- 고대일본어 ki(城, 柵)는 백제어로부터의 차용
 - *kilci 吉支(王), 王 吉□ 왕(光州版 千字文)
- (4) 上層의 夫餘系 단어
 - *supi 所比(赤, 赤鳥), 고구려어 *sapikən, sapuk(赤)
 - *eraha 於羅瑕(王)
 - *eryük 於陸(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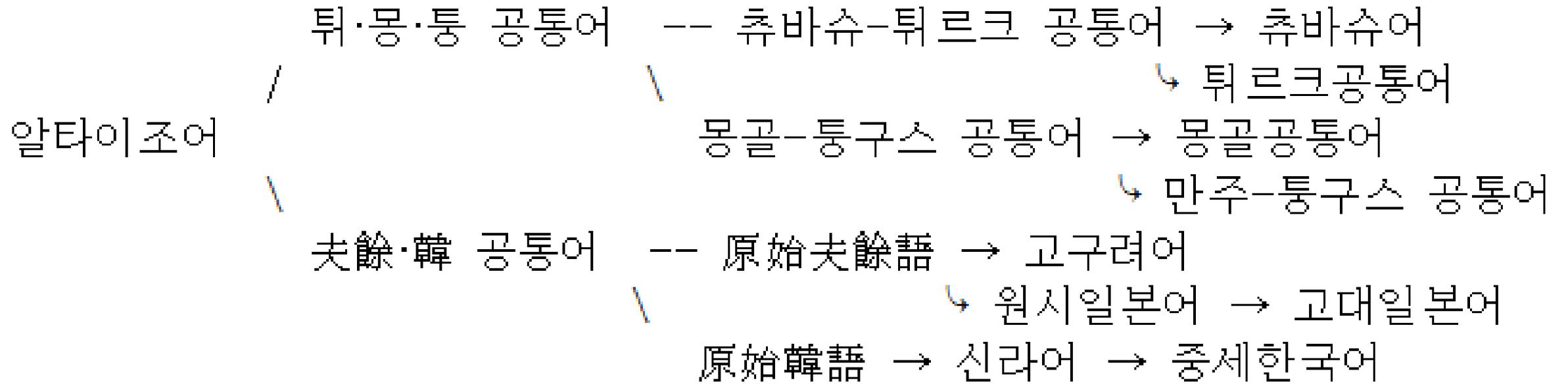
가야어의 편린

- 돌 梁(門)(三國史記 卷44), 고대일본어 to(門), 만주 duka(門)
- 밀 推(三)(三國史記 卷34), 고구려어 mil 密(三), 고대일본어 mi(三)
- 토 吐(堤)(三國史記 卷34), 고구려 지명 吐(堤)와 일치
- 단편적이거나 고구려어와의 일치가 인상적임.
- 기원전 弁韓 지역에 夫餘系 언어가 존재했음을 암시.
- 가야는 제철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 북방으로부터 내려온 부여계의 고립된 섬일 가능성이 있음.

삼국의 언어적 관계 및 국어의 형성에 관한 이기문 교수의 견해

- 신라어와 백제어는 모두 韓系 언어로서 방언적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 다만 백제의 지배층은 부여계 언어를 사용했다.
- 고구려어(부여계)는 백제어, 신라어와 방언적 차이 이상의 언어적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 변한(가야)의 언어는 부여계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 일본어도 부여계 언어에 속한다. 기원전 3세기경 일본 北九州로 이주하여 야요이(彌生) 문화를 탄생시킨 주역은 바로 이 변한인들일 가능성이 높다.
- 고구려어는 한국어와 알타이어, 일본어와 알타이어의 사이에 놓이는 missing link이다.
-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에 따라 옛 백제, 고구려 영토에도 신라어의 세력이 미치게 되어 한반도에 언어적 통일이 이루어졌다. 즉, 고구려와 백제의 故土에 언어의 치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 고려 왕조가 들어섬에 따라 한반도의 언어상의 중심지가 경주(동남지역)에서 개성(중부지역)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당시 개성말은 신라어의 서북 방언이었으므로 중세국어는 신라어의 계통을 잇는 언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고구려어의 영향도 없지 않았다. 언어의 치환이 일어날 때 사라지는 옛 언어가 새 언어에 基層(底層, substratum)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일은 흔히 있다.
 - 그러나 고려, 조선 시대에 걸쳐 동남방언은 줄기차게 중부방언에 영향을 미쳐서 고구려어의 영향을 점차 없애 버렸다.

알타이어와 한국어의 관계에 대한 이기문 교수의 견해



- 무라야마 시치로(村山七郎) 등 몇몇 일본 학자들은 일찍부터 이 기문의 견해와 비슷하게 고구려어와 일본어, 일본어와 통구스어의 친족관계를 밝히려고 노력한 바 있음.

북한 김수경(1918-1999)의 반론

- 경성제대 철학과 졸업(1940). 1946년 월북.
- 김일성대학 조선어문학부 조선어학 강좌장 역임.
- 북한 국어학의 초석을 놓음.
- 잘 나가다가 숙청되어 고초를 겪음.
- 남한 학계를 비판한 책을 내어 권력자의 눈에 들어 학계에 복귀
 - 『세 나라 시기 언어 력사에 관한 남조선 학계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평양출판사, 1989)
 - 이기문 교수가 주된 비판의 타겟. “민족분열론자의 책동”
- 탄탄한 언어학적 훈련을 받은 실력 있는 학자이나
 - 동송학술재단에서 2006년 올해의 언어학자로 선정
- 위 책은 정치적 목적/편견의 소산

이기문 교수의 견해에 대한 비판 및 다른 견해들

- (1) 三國史記 地理志의 高句麗 地名들을 과연 고구려어 자료로 다룰 수 있을까? 이 지역은 장수왕 때 고구려의 영토가 되기 전에 백제의 영토였으므로, 이들 지명은 백제의 지명으로 보아야 한다.
 -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崔鶴根(1964), 김방한(1983), 도수희(2002)
- (2) 지금까지 알려진 고구려어 단어 80여개 중 신라어, 중세국어와 대응을 보이는 예가 30여개나 되는데 고구려어와 신라어를 서로 다른 언어로 보아야 하는가?
 - 김수경(1989) 등 북한 학자들, 金思燁(1975)
- (3) 14번의 기사를 중시하여 고구려어와 백제어의 차이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내에서도 계급 간의 어휘의 차이는 흔히 있는 법이다.
 - 김수경(1989) 등 북한 학자들, 김방한(1983)
- (4) 3국 언어의 차이는 그리 큰 것이 아니며 방언적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또는 언어적 차이라고까지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다.
 - 북한 학자들, 이송녕(1967), 김방한(1983), 박병채(1989,1996), 최남희(1996)
- (5) 변한(가야)어에 관한 지극히 박약한 자료(세 단어)를 가지고 고구려어와의 관계, 일본어와의 관계를 논하기 어렵다. --- 김수경(1989) 등 북한 학자들
- (6) 국어에 보이는 알타이적 요소에만 집착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알타이족이 들어오기 전에 고아시아족이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고아시아어의 기층이 존재할 지도 모른다. 특히 길리약어의 요소가 국어에 보인다. --- 김방한(1983 등)

이기문 교수의 견해에 대한 비판 및 다른 견해들

- (7)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여 고구려와 백제의 故土에 신라어가 세력을 뻗친 것은 사실이겠지만 언어의 치환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고구려 방언은 삼국통일 후에도 자신의 특성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며, 개성은 옛 고구려의 영토이므로 고려어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신라 방언이 아니라 고구려 방언이다. --- 김수경(1989) 등 북한 학자들
- (8) 국어는 알타이어족이나 기타 다른 어족의 한 분파(결가지)가 아니라 그 발생·발전의 전과정이 독자적인 언어이다. 국어와 알타이제어, 일본어 사이에 보이는 유사성은 친족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접촉에 의한 것이다.
 - 김수경(1989) 등 북한 학자들
- (9) 숙신·읍루·물길·말갈에 대해 白鳥庫吉(1914-6), 이기문(1967)은 통구스족에 속하는 것으로 보나 김방한(1983)은 고아시아족에 속하는 것으로 봄.
- (10) 이기문은 고대국어의 범위를 신라어로 한정하고 있는데 고구려어와 백제어도 고대국어에 포함시켜야 한다. --- 북한 학자들, 최남희(1996)
- (11) 한국어나 일본어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갈라진 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 계통은 전통적인 비교언어학의 방법으로 규명하기 어렵다. --- 松本克己(2007)